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3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행 동지 십+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 (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순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다시 듣고 싶은 설교 ③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고 이종운 원로목사

시편 23편은 시편 중 가장 잘 알려진 시요, 가장 사랑받는 시입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시편 안에 있는 진주’라고 했습니다. 이 시에는 의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불안도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으로 핍박과 환난과 죽음에 직면한 이들을 위로하고, 죽음의 고개를 넘어가는 이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며 소망의 줄을 붙들기도 합니다.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서 400회 이상 나옵니다. 모세 앞에 타지 않는 가시덤불 속에 계시던 하나님은 ‘나는 나다(I am that I am)’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초시간성(timelessness)과 자급자족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초시간성은 하나님은 처음도 끝도 없는 분임을, 자급자족은 누구의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 어떤 힘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에게만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목자가 필요하다면 다윗과 같은 막내아들의 몫이 됩니다. 목자는 양과 24시간을 함께 살아야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처럼 목자는 고단하고 괴롭고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주의 대주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돌보시기 위해 자기를 비하시키신 것입니다.

2.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므로 우리에게는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시고 무한하시며 전능하시고 불변하신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이다”(시 131:1). D. L. Moody 목사님은 “네 부요가 소유의 많은데 있지 않고 소원이 적은데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소원이 적다는 것은 소원의 단순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찾으면 모든 것을 소유한 만족보다 더 큰 즐거움과 만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면 하나님도 잃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잃게 됩니다.

3.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성도는 무엇이 부족하지 않은가?

■ 쉴 곳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은 제일 먼저 쉼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고 그 분을 만나고 있습니까?

■ 생명에 부족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는 나를 회개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버려진 양과 같아서 영적으로 흔들리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다시 불러 사명을 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즉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십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으므로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 안전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지팡이와 쇠로 만든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며 야생동물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뒤쳐진 양을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므로 우리가 안전함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 양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 놓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기쁨의 잔을 채우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 천국 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순례자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러 하늘에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 집이 준비되었으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였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쉴 곳도, 생명도, 인도하심도, 안전도, 양식도, 천국 집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역사 강의 - 한국교회사 50장면(2)

만주의 성서번역과 신앙공동체의 형성



손달익 위임목사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손에 든 성서는
그 가르침에 꼭 빠지게 되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야 맙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독교의 역사는 선교사가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며 성서를 번역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다르다. 한국은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 의주의 상인 계층이 만주에서 성서번역에 참여하다가 또는 성서를 읽다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조선으로 성서를 밀반입하며 신앙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다. 의주·평양·장연·서울로 이어지는 의주 상인의 행상로가 초기 한국교회의 발상지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초기 한국교회사에서 의주 상인 계층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다. 의주가 포함된 관서지방은 한국 최초로 “자립적 중산층”이 출현한 곳이다. 의주 상인들은 무역을 통해 일정수준의 경제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만주어와 한문에 능통하고 씬에 밝아 지적으로도 뒤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관서지방에 대한 지역 차별과 상인계급에 대한 신분 차별로 인해 변두리의 소외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유교, 더 정확히는 주자학적 지배질서를 대신한 새로운 사회윤리와 종교를 원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기독교와 만난 것이었다.



존로스 선교사 가족사진

한국의 첫 성서번역과 조선인 세례는 모두 만주에서 이루어졌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의 존 로스(John Ross) 선교사는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1874년 중국과 조선의 중요 무

역 거점인 고려문을 여행한 적이 있었다. 이때 전도에 성과는 없었지만 한 의주 상인, 즉 백흥준의 부친을 만나 한국어를 조금 배울 수 있었다.

로스는 백흥준의 부친에게 한문 신약성서와 다른 책 한 권을 전해 주었다. 로스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조선이 개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려문을 여행하다 만난 이응찬을 한국어 어학교사로 고용하였다. 이응찬은 풍량을 만나 상품을 모두 잃고 무일푼의 처지가 되었던 의주 상인이었다. 당시 조선인이 서양인을 돕는 것은 목숨이 위협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로스가 높은 급료를 주었기 때문에 이응찬은 위험을 무릅쓰고 로스와 일하기 시작했다. 이응찬과 로스는 1877년에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 '한국어 첫걸음(Corean Primer)'을 발간하였고 1878년에는 이응찬의 동향 친구 몇 명이 합류하여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하였다. 그 후 이응찬이 잠시 귀향한 사이 1878년 백흥준의 동향인 2명이 선교사를 찾아 만주에 오는 일이 있었다. 백흥준의 부친에게 주었던 성서와 책을 2-3년 읽다가 신앙에 눈을 떠 세례를 받기 원하는 이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1879년 1월 첫 조선인 수세자가 되었다. 두 번째 수세자는 백흥준으로 역시 부친이 받았던 성서와 책을 읽다가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선교사를 찾아와 “도를 배우고” 세례를 받았다. 성서번역 과정에서 신앙을 얻게 된 이응찬이 잠시 귀향하였다가 복귀하여 그해 7월에 세례를 받았고, 이응찬과 함께 온 친척도 성서번역에 동참하다 12월에 세례를 받았다. 이들은 세례를 받은 후 계속해서 성서번역에 참여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다.



최초 한글 신약전서 예수성경전서

한편 로스는 이응찬이 잠시 귀국했던 사이 흥삼 장사를 하는 의주 출신 서상륜·서경조 형제를 만났는데 이들 중 서상륜은 로스의 성서번역을 잠시 돕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만주의 한국인들은 적어도 1880년부터는 8명 이상이 모여 정기적인 한국어 예배를 드리며 신앙공동체를 형성했고 국내에 성서를 반입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 이에 영국성서공회는 1882년 10월 서상륜을 최초의 권서(성서 판매 행사인자 전도인)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서상륜의 고향인 솔내에 한국 최초 교회인 소래교회가 자생적으로 창립되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손에 성서를 들려주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그들은 반드시 성서의 가르침에 꼭 빠지게 되며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야 말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 3부 청년예배!

서울교회 3부 예배가 청년예배로 새롭게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순례자는 3부 예배의 찬양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현종필 목사와 새로운 찬양 형태를 시도 중인 임마누엘찬양대 부대장 김정훈 안수집사, 찬양팀 리더인 한대석 안수집사와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새로운 변화의 기초는 예수님!



현종필 목사

순례자 : 3부 예배 찬양사역자로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필 목사 : 처음부터 새로운 도전이 아름답고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예배라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설레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런 불안함을 털어드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에 전통적으로 드리던 예배순서를 크게 바꾸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예배를 기획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낯설지 않게 해 드리려고 신경을 썼지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3부 예배의 새로운 시작은 서울교회의 혁명적인 일이라고도 말씀하시며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서울교회의 예배로는 낯설다'라며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3부 예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형식과 틀을 정해 주시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예배는 새로운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3부 예배의 변화와 새로운 출발이 앞으로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분들이 3부 예배팀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며 섬겨주고 계시고 귀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3부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귀한 마음들이 서울교회의 미래를 은혜의 시대로 열어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청년들이 용기를 얻는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순례자 : 3부 예배는 서울교회에 처음으로 생긴 예배 형태입니다. 낯설어 할 기성 서울교회 성도들과 청년예배를 기다린 청년들에게 드리는 부탁은?

현종필 목사 : 예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특별하고 그 모임이 작건 크건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1·2부 예배를 드릴 때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감동과 은혜는 3부 예배에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3부 예배는 '무엇이 다르고 왜 필요한가' 라고 할 때 이렇게 실용음악의 악기

들이 동원되는 점과 CCM찬양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3부 예배가 젊은 세대들에게 필요했던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과 상황에 좀 더 직접적으로 공감하고 연결될 수 있는 예배이기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시편 51:17)'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고백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마음을 활짝 열어 주를 사모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3부 예배는 그런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더라도 예배 때 들려지는 찬양곡들에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각 세대들마다 공유하고 은혜가 많이 되는 찬양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은혜받을 수 있는 찬양을 선곡하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선곡할 때부터 기도도 많이 하면서 선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 잘 모르는 곡이 있을지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곡이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반복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 곡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곧 익숙해 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르고 싶은 곡은 얼마든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들은 잘 기록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선곡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세대가 행복하게 주를 향해 마음을 열고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울교회의 새로운 변화 속에 비전을 봅니다!



김정훈 안수집사
(임마누엘찬양대 부대장)

순례자 : 3부 예배의 변화에 따른 임마누엘찬양대의 변화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훈 안수집사 : 서울교회 회복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현실과 같이 고령화 문제가 한국교회와 서울교회에서도 심각해지는 시점에 청년부 활성화와 부흥을 위해 열린 예배 형식으로 새롭게 바뀐 3부 예배는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으로서 젊은 열정이 넘치는 서울교회의 새로운 변화 속에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지 한 달이지만 임마누엘찬양대 찬양곡 선곡부터 찬양대 가운을 벗고 젊은 청년부와 함께 더욱 활기차고 은혜로운 예배에 적극 동참하며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로 임마누엘찬양대가

되어 더욱 활기차고 은혜로운 3부 예배에 적극 동참하려 합니다.

순례자 : 임마누엘찬양대 대원들과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김정훈 안수집사 : 새로운 3부 예배는 찬양과 기도에 갈급했던 성도들에게 단비 같은 예배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젊은 세대에 물려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청년부 대원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찬양대와 청년부 부흥을 위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마음의 받을 만들어 주는 찬양이 있는 예배로!

순례자 : 3부 예배 찬양팀 리더로서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석 안수집사 :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찬양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안 계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울교회는 전통적인 예배의 틀이 확실히 잡혀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강조해 왔고, 그 중에서도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강조해 왔습니다.

3부 예배의 찬양팀을 준비하면서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아주 좋은 마음 받을 만들어 주는 찬양이 있는 3부 예배, 그래서 말씀이 쑥쑥 들어오고, 변화 받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형식의 3부 예배의 피드백 중에 찬양에 대한 피드

백도 많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쑥쑥 와 닿는다는 피드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증거로 받고,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순례자 : 찬양사역팀의 앞으로 계획은?

한대석 안수집사 : 아직은 시작 단계라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 태어난 3부 예배이기에 교회 본당의 구조적 문제, 오래된 악기 등, 장비들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용된 악기들은 그간 교회학교에서 사용하던 악기들이어서 본당에 장비들을 가져다 놓으니, 교회학교들은 불편함을 겪게 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서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서울교회의 다음



한대석 안수집사
(3부 예배 찬양팀 리더)

세대들의 수가 늘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찬양하며 전진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부 예배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리 : 유은경 집사(편집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손달의 목사님과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서아시아에서 사역을 펼치고 있는 전OO입니다.

지난 2월 6일(월), 새벽 4시 17분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화) 현재 아직까지도 6도 이상의 강도 높은 여진이 150여 차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 7일(화) 오전 8시 현재 시간으로, 사망자는 3,000여 명, 부상자는 16,000여 명이며 건물 붕괴(아파트, 집, 건물 모두 포함) 5,000여 채로 참혹한 상황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여진과 주택 붕괴로 튀르키예 국민들은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학교 강당과 공공기관의 체육관 등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눈보라가 치는 추운 계절이라 심각

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저는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이 발생한 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대지진을 피하였습니다. 저를 위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3일(월)까지 7일 동안 '국가예도'기간으로 정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10곳은 3개월간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을 위해 아프고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특별 구제헌금

교회는 지난 2월 8일(수) 2월 정기당회에서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특별 구제헌금'을 하기로 하였다.

지난 2월 6일(월)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수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이 지역 교회의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교회는 오늘 12일과 다음 주일(19일) 예배 시간에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특별 구제헌금'을 드리게 된다.

서아시아에서 전OO 선교사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독일 비르템베르크 주 교회 루드비히스부르크 노회 노회장 (Ludwigsburg)과 독일 비르템베르크 주 교회 루드비히스부르크 노회 대표단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였다.



지난 2월 3일(금)부터 5일(주일)까지 중·고 등부 연합 겨울수련회가 '우리는 누구인가? Who Are We?' 주제로 아가페타운과 서울 교회에서 열렸다.

2023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오늘 : 사랑부, 서울교회 / 2월 17일(금) : 청년부, 아가페타운

구분	주제	주제 말씀	일정	장소
영·유아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해요	창 1:31	2/25(토)-26(일)	서울교회 706호
유치부	바르게 믿어요 (복음과 구원받는 믿음)	엡 2:8	2/25(토)-26(일)	서울교회 702호
유년부	신나는 성경 탐험, 구약 속으로!	시 119:105	2/25(토)-26(일)	서울교회 701호
초등부	비교하지 않아요!	엡 2:10	2/24(금)-25(토)	아가페타운
청년부	사랑받는 자들	요 10:40	2/17(금)-18(토)	아가페타운
사랑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2/11(토)-12(일)	서울교회

2023년 봄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

강좌	요일 및 시간	기간	강사 / 담당	장소
시편	화, 오전10:30-12:00	3.7-4.25 (8주)	현종필 목사	서울교회 602호
히브리서	목, 오전10:30-12:00	3.9-4.27 (8주)	조원영 목사	서울교회 602호
아기학교	주일, 오후 2:00-3:10	3.12-5.14(10주)	강남희 전도사	서울교회 706호
살롱경로대학	목, 오전 10:30-13:30	3.9-5.11(10주)	박미라 전도사	서울교회 101호

70인전도대 다시 시작하다

지난 2월 8일(수) 2월 정기당회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3년여 동안 강화되었던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70인전도대(지도 교역자:장석남 목사)를 다시 조직하기로 하고 부장은 김지수 안수집사, 차장에는 채교천 안수집사, 김애리 권사를 각각 임명하였다. 한편 70인전도대 총무는 김순진 권사, 회계는 김은숙1 권사가 봉사하기로 하였다.



부장
김지수 안수집사



차장
채교천 안수집사



차장
김애리 권사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2월13일	월	레 14:33-16:34		수 15-19	
2월14일	화	레 17-19		수 20-24, 삿 1-3	
2월15일	수	레 20-22		삿 4-8	
2월16일	목	레 23-25		삿 9-14	
2월17일	금	레 26-27		삿 15-21	
2월18일	토	민 1-2		룻 1-4, 삼상 1-3	
2월19일	주일	민 3-4		삼상 4-11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농어촌100교회·Vision2030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 비전 2030 후원자

문동진·김은정(5구좌) 남영주(2구좌) 김숙자(1구좌) 김애리(1구좌) 사라전도회(5구좌) 에스더전도회(3구좌) 한나전도회(3구좌)

■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문동진·김은정(1/2구좌) 남영주(1/2구좌) 김애리(1/2구좌) 사라전도회(1/2구좌) 에스더전도회(1구좌) 최주하(어린이) 최무진(어린이) 최무건(어린이) 한나전도회(1구좌)

■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남영주(1/2구좌) 김애리(1/2구좌) 사라전도회(1/2구좌) 에스더전도회(1구좌) 한나전도회(1구좌)

등정

■ 손달익 위임목사는 '총회 중미지역 선교사대회'의 주강사로 초청받아 2.13(월) 출국하여 24일(금)에 귀국한다. 모든 일정과 건강을 위해 성도들의 기도 부탁 바란다.

■ 식사 제공 : 호산나대학 교사 일동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 감사합니다

생전에 장애인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호산나대학을 설립하신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께 그간 받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소천하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호산나대학 교직원 일동)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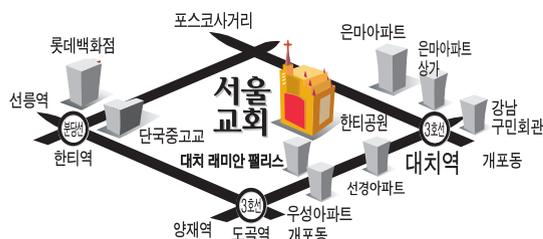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오직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십자가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성도 되게 하소서.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서울교회 되게 하시고,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특별 구제헌금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빠른 복구,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예배	오전 9시
	II부예배	오전 11시
	III부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일예배	I부예배	오전 11시
	II부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